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81 (요르단강에서)	342 (제물 드리니)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1 (나는 믿나이다)

제 1독서 | 이사야서 42,1-4.6-7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답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좌)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우)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좌)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 2독서 | 티토 2,11-14; 3,4-7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 후 묵상 |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2025년 '희년(Jubilee)' 선포와 기도



희년은 올해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전 성년(聖年) 문 개방으로 시작해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희년을 공식 선포하시면서, 교황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Spes Non Confundit, Hope Does Not Disappoint)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희년은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선포하는 은총의 해로,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1475년부터 25년마다 거행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희년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 되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신앙인들은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갖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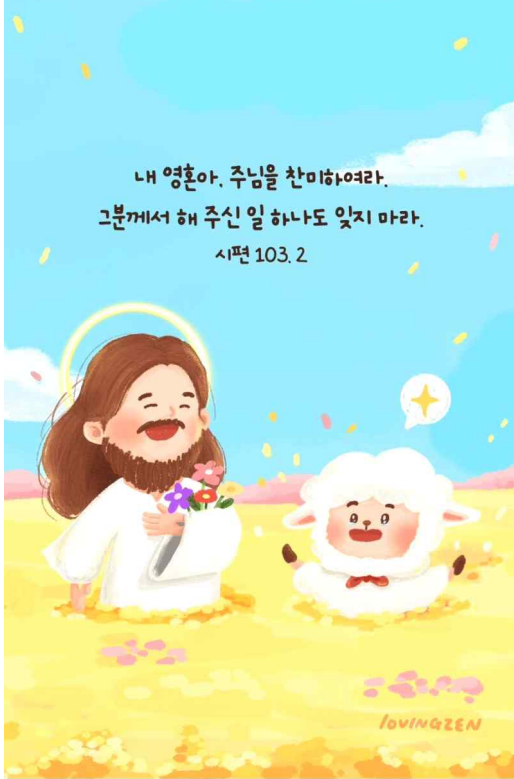
<기도 안에서 희년 맞이하기>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십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이 자라 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 문은 나의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지요. 어떤 업무처럼 반복적으로 정확히 수행해야만 필요한 물건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멈추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숨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필수적 행위가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고, 인간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 안에서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삶의 기쁜 순간에 있든,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에 있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Learning Christ - Prayer of St. John Henry Newman

Teach me, my Lord, to be sweet and gentle in all the events of life: in disappointments, in the thoughtlessness of others, in the insincerity of those I trusted, in the unfaithfulness of those on whom I relied. Let me put myself aside, to think of the happiness of others, to hide my little pains and heartaches, so that I may be the only one to suffer them. Teach me to profit by the suffering that comes across my path. Let me so use it that it may mellow me, not harden nor embitter me; that it may make me patient, not irritable, that it may make me broad in my forgiveness, not narrow, haughty and overbearing. May no one be less good for having come within my influence. No one less pure, less noble for having been a fellow-traveller in our journey toward eternal life. As I go my rounds from one distraction to another, let me whisper, from time to time, a word of love to You. May our life be lived in the supernatural, full of power for good, and strong in its purpose of sanctity. Amen.



행복은 우리 인간의 소명이고, 모든 이가 열망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덧없는 쾌락, 한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더 갈망하게 만드는 순간의 만족감,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드는 집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법에 관하여 (Fr.김술 노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딱딱하고, 엄숙하며,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법’이라는 엄격함이 더해져 있으니, 그런 오해를 살 법도 합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로마로 향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법을 공부하면서 참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가능한 많은 것을 배려하려는 교회의 ‘마음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법이 왜 중요합니까? 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기에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만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은 그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하느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일 것입니다. 법보다 하느님과 사람이 더 중요하며,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법이 지켜지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교회법이 지켜지는 것보다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법 사이의 충돌 안에서 보편법보다 지역교회법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일반교령보다는 개별교령을 더 존중하며, 그 가운데서도 ‘관면’이라는 제도를 두어 개별적인 상황을 배려합니다. 법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 안에서 교회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교회법은 스스로 법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배려하기 위한 단서 조항들을 달아 놓습니다. 또한, 관면 제도를 열어두어 신자들의 선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의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모든 이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정된 교회법은 스스로 절대적이길 원치 않습니다.

공지 사항

1. 영적독서 모임

- *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 독서 모임을 위하여 다음 부분을 읽어주세요
- *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 187p까지
- *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 7-8번째 밤 챗터

2.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9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 여정 '시즌 3' 영적독서 모임 신청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묵주기도 후)
- 기간: 2월 25일(화)부터 ~ 4월 중순까지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2월 2일(주일)까지입니다.

4. 대전교구 새사제들을 위한 기도

1월 14일에 새로이 서품되는 대전교구 새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동운 바르톨로메오



김한구 프란치스코



이교희 도미니코



이대현 대건안드레아



황범기 이나시오



박병현 마르티노

| 미사 참례자 수 |

12월 1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43명
12월 8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0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월 12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1월 19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월 12일)	마르코반
다음주 (1월 19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1월 4일 ~ 1월 10일)

봉 헌 금	\$ 408			
교 무 금	\$ 460			
구민식	김천주	서미숙	손재호	안영규
윤현태	정은영	황병욱		

| 기도 지향 |

- * 복사단 아이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 * 서원석 미카엘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